

호주 대학교육의 특징

정 학 기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목 차

- | | |
|---------------|-----------------|
| I. 서론 | 2.3. 호주대학교육의 특징 |
| II. 호주의 교육 제도 | 2.4. 호주의 직업교육 |
| 2.1. 호주의 교육체계 | III. 결론 |
| 2.2. 호주의 대학교육 | 참고문헌 |

I. 서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이 말이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있지 못한 현실과, 현 한국교육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의 표현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실무교육과 책상에서 느끼는 단편적 교육관은 다르며 이에 대한 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특히 응용과학분야인 공학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은 공과대학 졸업자의 학력에 대한 상호 인정을 목표로 각국의 공학교육인증기관간 다자간 협의체(워싱턴어코드, Washinton Accord)를 1989년 조직하였으며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홍콩에서 열린 워싱턴어코드 국제회의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워싱턴어코드에 준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국내 공학교육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전공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 학력을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의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도 미국의 기술사 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으나, 향후 워싱턴어코드 가입국 증가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만 공과대학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국내 공과대학에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공학교육인증 대학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학교육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므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산자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인증대학을 우대하고, 인증평가에 대한 예산지원 등 공학교육인증을 시작한 이래, 교육부, 정통부 등도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국내 공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공과대학 평가, 공학인증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지면에서는 가장 일찍 공학교육 국제회의에 가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호주의 일반적 교육제도와 교육구조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이와 같은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II. 호주의 교육 제도[1]

먼저 공학인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호주대학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전반적인 호주교육 체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2.1. 호주의 교육체계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대학과정까지 6.3.3.4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호주의 교육제도는 6.4.2.3제이다. 초등학교는 6년 과정과 중학교는 4년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는 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물론 주에 따라 7.3.2.3제를 택하기도 한다.

표 1. 호주의 교육체계

구 분	학 위 / 학 력	수료기간	입 학 조 건
초등학교 (Primary)		6년	
중고등학교 (Secondary)	10학년 수료증 (중학교졸업장)	4년	초등학교 6년 수료
	12학년 수료증 (고등학교 졸업장)	2년	10학년 (우리나라고등학교)
주립전문대학 (TAFE)	Certificate 1-4급	6개월미만	호주 10학년 수료
	Diploma	6개월미만	호주 12학년 수료
	Advanced diploma	6개월미만	디플로마 수료
대학교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3년	호주 12학년 수료 (우리나라 고3) 우리나라 대학 1년 이상 수료 호주대학 예비과정 수료 TAFE 수료증 하나에 해당
	콤바인 학위 (Combine Degree) 우수학사 학위 (Honours Degree)	5-6년	특정과목에 한함
대학원	수료증(Graduate Certificate)	6개월-1년	학사학위
	준석사(Graduate Diploma)	1년	학사학위
	석사(Master)	1-2년	Honour Degree 우등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경력
	박사(Doctorate, PhD)	3년이상	Honour Degree(우수학사학위), 스폰서 필요

그리고 의대나 공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3년 과정이다. 학기 기간은 2월부터 11월이기는 하나, 다른 학기제를 갖고 있는 나라의 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기관들이 중간 학기 입학을 허용한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든,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이는 본인 자신의 선택이겠지만, 다른 교육시스템이 보여주는 호주의 교육현실을 통해 많은 것을 통찰해 보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특징적인 체계는 주립전문대학과정인 TAFE일 것이다. 이에 대해선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호주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까이 직업훈련과정인 TAFE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과정인 TAFE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설되었다면 역시 외면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는 사회적인 인식 및 구조의 차이에서오는 문화적인 차이일 것이다.

2.2. 호주의 대학교육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호주의 대학은 전국

43개 대학 중 3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이다. 연방정부에 의해 매년 엄격하게 평가되며 관리되고 있다. 다양한 전공과정이 있으나 연구 중심의 대학이나 실용적 프로그램의 대학 등으로 대부분 특성화 되어 있고 한국과 같은 대학 간의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 철저한 인증기준을 통하여 학과의 질적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교육기관 및 산업체들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은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2006년 6월 News Week에서는 Shanghai Jiatong University와 Times of London Higher Survey 자료를 토대로 한 ‘The complete List : The Top 100 Global Universities’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38위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를 비롯해 50위 University of Sydney 등 7개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포함되고 있다. 또한 작년에 타임지에서 발표한 세계 top200대학에도 랭킹 50위내 6개의 대학이 포진되어 있다. 세계 대학 랭킹 TOP100의 선정기준은 상호 평가, 고용주 평가, 교수 대학생 비율, 외국인 강사 수, 외국인 학

생수, 논문 인용의 점수를 집계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한다. 타임지가 발표한 자료중 세계 TOP150위 대학을 국가별로 정리해 보면 각 나라별 전체 대학 중 미국은 1.2%, 영국 7.2% 캐나다 3.3%가 이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는 약 30%정도의 대학이 TOP150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대학이 된 이유는 전술한 바와같이 철저한 인증기준에 의하여 학생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이 곧 졸업”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호주에서는 졸업장 획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표 2. 2006 Australian University Rankings in th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World Rankings

National Rank	University	Regional Rank (Asia Pacific)	World Rank
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3	54
2	University of Melbourne	7	78
3-5	University of Queensland	10-19	102-150
3-5	University of Sydney	10-19	102-150
3-5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10-19	102-150
6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24	151-200
7-9	Macquarie University	25-40	201-300
7-9	Monash University	25-40	201-300
7-9	University of Adelaide	25-40	201-300
10-11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41-63	301-400
12-16	Flinders University	64-92	401-500
12-16	James Cook University	64-92	401-500
12-16	Murdoch University	64-92	401-500
12-16	University of New England (Australia)	64-92	401-500
12-16	University of Tasmania	64-92	401-500

호주 대학의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Bachelor Degree (학사학위)와 Combine Degree(컴바인 학사학위), Bachelor Honours Degree(우수학사학위)가 있다. 일반적인 Bachelor Degree(학사학위) 이수기간은 3년이다. 인문사회계열, 과학계열, 상경계열 등이 포함된다. 공학, 농학, 일부 예능계열학과는 4년, 건축학, 치의학, 수의학은 5년, 의학, 법학은 6년이다. 특정학과의 경우 3학년 학사를 마치고 1년 Combine Degree 과정을 받기도 하는데 성적에 따라

Honour Degree를 수여하기도 한다. Bachelor Honours Degree(우수학사학위)는 학사과정의 성적우수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며 1년의 연구과정이 주어지게 된다. Lectures(강의), 그리고 교수와 함께 심화 토론하는 Tutorials(10여명의 소규모 그룹지도)를 병행한다. 과학 및 컴퓨터 관련 전공은 실험 실습시간이 포함된다. Tutorials(소규모 그룹지도)는 학생과 교수, 학생들 간의 개별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대학의 대학원과정은 4가지 학위로 분류된다. 즉, Coursework-Graduate Certificate(수료증), Graduate Diploma(준석사), Master(석사), Doctorate(박사)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의 석사과정과 동일한 Master는 주로 수업을 듣고 여러 개의 짧은 Essay(논문)가 요구되는 Master Course Work 과정과, 수업 없이 연구만을 통한 졸업논문에 의해 학위를 받게 되는 Master Research 과정이 있다. 특히 호주의 학위는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4년간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이 수여되는 반면, 호주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같이 학과에 따라 3년에서 4년 동안 요구되는 학점(Credit Point; CP)을 이수하면 졸업장이 수여된다. 예를 들어서 브리스번에 소재한 그리피스대학의 경우 전기전자분야의 학사학위과정은 4년간 320CP를 요구하는 반면, IT분야 학사학위는 3년간 240CP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 지원이 어려울 때,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한국의 현실과는 다르다. 호주에서는 HECS-HELP, FEE-HELP등 다양한 학자금 보조 제도를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진출 이후 연봉에서 일부의 액수를 공제하게 된다. 그 액수가 미비하고, 연봉 약 AU\$36,000(물가지수동에 연동) 이하일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기여 입학제가 합법이다. 하지만 입학의 기회는 주어지나 일정기간 안에 TEST에 통과했을 때에만 계속 학업이 가능하다. 기회는 제공하지만, 그 다음 공부하는 것은 각자의 실력과 열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사회활동 중 좀더 공부하고 싶을 때, 약 40세 후에는 시험 없이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사회적 연륜과 학습능력 등이 인정되어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이 인정될 뿐 아니라, HEI(호주 대학이 인정하는 교과과정)를 통해 대학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호주는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무게도 없고, 기술습득의 길도 어렵지 않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호주사람들의 인식은 한국사회와 비교해 현저하게 다르다. "대학을 가야 사람구실은 한다?" 이것이 대학에 대한 한국에서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에 흥미가 없어도 학력에 대한 공공연한 잣대에 부딪치게 된다. 물론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열성이 반영된 대목일 수 있겠지만, 학력위주의 사회구성으로 인한 폐단도 크게 작용한다. 호주에서의 대학교육에 한 인식은 '전문직'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이다. 대학 입학자격 시험인 HSC(Higher School Certificate) 응시인원이 응시 가능자 15만 명 중에 6만 명 정도 일 뿐이다.

표 3. Teaching Performance Rankings August 2005

University	Score
1 - University of Wollongong	34.24
2 - Australian Maritime College	30.79
3 - University of Melbourne	29.93
4 -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29.33
5 - University of Queensland	28.73
6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6.95
7 - University of New England	25.56
8 - University of Canberra	24.25
9 - University of Bialarat	24.08
10 - University of Sydney	23.93
11 - Murdoch University	23.49
12 -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23.42
13 -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22.73
14 - Monash University	22.16
15 - La Trobe University	21.18
16 - Macquarie University	19.96
17 - Charles Sturt University	19.44
18 -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18.72
19 - Victoria University	18.65
20 - 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	18.44
21 - Deakin University	18.35
22 - Griffith University	18.25
23 - Edith Cowan University	17.91
24 -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17.45
25 - University of Newcastle	16.31
26 - Flinders University	16.02
27 -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15.39
28 - Southern Cross University	14.83
29 - RMIT	14.49
30 - James Cook University	14.17
31 -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13.67
32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3.56
33 -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12.85
34 - University of Tasmania	12.00
35 - 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11.49
36 - University of Adelaide	10.54
37 -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10.11
38 - Charles Darwin University	9.05

The scaling method used in preparing this league table has five components:
 1) CEQ (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generic skills: 17.91% weighting
 2) CEQ good teaching: 18.5%
 3) CEQ overall satisfaction: 18.9%
 4) Students in full-time employment after they graduate: 11.48%
 5) Those that go on to full-time study: 10.29%
 6) Drop-out or attrition rates: 10.65%
 7) Student progress or pass rates: 12.26%

표 3은 대학 교육분야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의 대학 순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

한 바와같이 호주 대학은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으로 철저히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3. 호주대학 교육의 특징[2]

호주대학내 공학교육의 특징은 한국의 여러 명문대처럼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공을 2~3개로 제한해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강점이다.

호주 대학내 공학교육과 한국 대학의 가장 큰 차이로 꼽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멜버른대 전자공학과(대학원)의 경우 통신과 신호처리 2개의 전공밖에 없다. 하지만 한 전공당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은 50여명에 이를 정도로 학문의 깊이는 상당하다. 이 때문에 대학의 대외적 명성과 이미지도 높아진다. 호주는 각 대학마다 특색을 강조해 대학별로 유명한 전공을 갖게 됐고, 따라서 전세계 대학 평가에서 순위가 높게 매겨진다고 사료된다. 기초 연구에 집중하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된다. 반면 한국의 대학은 백화점식으로 학문적 좌판을 벌이다 보니 대학별로 특색이 없어지게 됐다. 또 호주의 대학은 연구능력에 따라 연구비를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체제가 조성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 단위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다 일부 대학들은 지원규모의 차이를 놓고 반발도 하고 있다.

대부분 호주내 한국계 교수들이 한국 대학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호주에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면서 거리감을 줄인다. 자유롭고 대등한 위치에서 학문을 논하는 것이다. 한국 유학생들로부터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점이다. 문화를 극복해야만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에서는 전형적인 학업수업과 연구 또는 직업 쪽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과정 등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호주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장점과 전문적인 분야를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선택의 기회와 최신 과학기술, 선택한 분야의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호주에서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호주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종류의 책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팀의 논의에 참가하고 팀내 일원으로 활동하는 능력을 키

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기술들은 경쟁이 심하고 계속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부여할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라는 '과거의 역사'에 따라 '튜토리얼 클래스'가 영국의 옥스퍼드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즉, 100~150명이 듣는 대형 강의에는 10~20명의 학생들이 튜터와 함께 토론, 실험 등을 하는 튜토리얼 클래스가 뒤따른다. 튜토리얼 클래스를 통해 창의적 생각과 문제해결 능력, 연구 기술, 지도력, 특히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튜터가 없었다면 낙제했을 것"이라는 학생이 많으며 "공대는 숙제가 많기 때문에 튜토리얼 클래스를 통해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다수의 학생들이 말할 정도로 튜토리얼 클래스는 호주 대학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대 1~2학년생은 절반 이상이 낙제당하고 있으며 한 학기에 듣는 강의는 4과목에 12시간이다. 튜터는 한 강의당 한 시간씩 배정된다. 따라서 총 수업시간은 1주일에 16시간이 된다. 공대 학생은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고, 법대 학생은 모의 법정을 여는 등 튜토리얼 클래스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다.

호주 대학들은 연구 개발의 선도자이다. 대학들은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척하여 경영, 과학 및 업계의 발전을 주도하여 왔다. 대학원생들은 연구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습득하여 신기술의 개발 및 응용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게 되며 이러한 역동적인 연구 환경의 일원이 되어 최첨단의 혁신적인 기술과 연구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다.

고등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는 매우 중요하며 호주 대학들은 국제 교육,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일임하고 있다. 대학들은 전세계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높은 교수들을 임용한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교육기관들과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4. 호주의 직업교육[3]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은 공립기관인 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이다. 우리나라 전문대학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TAFE는 짧은 교육기간을 거쳐 특정 기술을 습득하고 이수 후 취업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10학년 이수자격(고교 1-2학년정도)이면 시험없이 신청하여 입학 허가되며, 그 비용이 한 학기 AU\$300-500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각 주의 수도 및 전 지역에 걸쳐 학교가 분포해 있고 일 정기간을 수료하면 해당분야 자격증을 받아 취업을 하거나 수료과정에 따라 대학교로 진학 및 편입도 가능하다.

학습과정은 다양하고 능력위주이며 산업계와 학생들의 요구를 융통성있게 반영한다. 또한 과정들은 산업계의 협조를 통하여 국내의 산업 발전의 최근 현황에 맞추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TAFE는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인 고등 교육 기관이다. 1998년에는 백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국 약 250개에 달하는 TAFE에 등록을 하였고, 이 중 37,000명 이상이 유학생이었다. TAFE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직접적으로 직업과 관계되는 교육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AFE에서 제공되는 과정들은 산업계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TAFE는 영국의 폴리테크닉(대학 수준의 종합 기술전문학교), 아시아의 기술학교, 그리고 미국의 지역 전문대학과 유사하다. 이곳에서는 실제적이면서 경력 중심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혹은 직장에 다니면서 학업을 수행해 경력을 쌓을 수 있다. TAFE 교육기관 및 사립 칼리지라고 불리는 공립 교육 기관들은 직업 교육 및 연수(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코스들을 제공한다. 모든 교육기관 및 칼리지는 정부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다. 호주의 VET 졸업생들은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직업을 구하기 용이하며, 디플로마 및 학사 학위 코스를 위한 대학교 입학에 포함한 고등 교육 코스로 진학할 수도 있다. 반드시 대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술보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대학 내 특별한 전문분야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없는 경우 일반적 다수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진출을 하게 된다.

호주의 직업훈련교육을 먼저 알기 전에 왜 호주의 평생교육이 최근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최근 평생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맥락은 '정보화 시대'와 '지식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세계화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일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호주는 교육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을 하였다. 그래서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민의 학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세계의 변화이다. 호주는 전통적인 직업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이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에 따라 호주의 기업들은 국제적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국제적 경쟁력은 바로 잘 교육받은 노동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 통합과 시민 사회의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 지식 경제 시대의 도래와 지식과 학습에의 접근 기회 부족으로 생기는,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대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예방과 극복 방안이 바로 평생학습으로 보는 것이다.

호주의 교육제도는 각 주 정부와 산하단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1998년 3월 3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unesco 국제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세기 교육"에서 호주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장관인 Dr. David Kemp의 연설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연설에서 평생학습의 두 가지 측면, 즉 기초 기술을 위한 환경과 학교, 일, 계속 교육 사이에 유연한 통로에 대한 이야기 했다. 기초기술은 컴퓨터 문해, 복잡한 정보처리능력을 포함한 문해와 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청소년 측면에서는 호주의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한 기초 문해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성인 학습자의 측면에서는 기초 기술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자격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처음 소개된 호주교육자격제도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AQF)는 전국의 교육 자격증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서 이 제도에 의하여 호주의 모든 직업 기술 과정 및 고등학교, 대학교의 자격증을 단일 체계화하였다. AQF에 따라 TAFE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은 표 4와 같이 나뉘어 질 수 있다.

III. 결 론

교육시스템, 제도적인 뒷받침이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교육은 사람의 사고체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첫 시작점이고, 교육을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라 함은 이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인격 그 자체가 존중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삶 중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호주 교육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특장점들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연구해보

표 4. TAFE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종류

자격증 종류	특징
수료증1급 (Certificate I)	- 보통 3개월 ~ 6개월 과정 - 직업 기술 개발을 위한 매우 기초적인 과정 - 학생들의 예비 기술과 지식을 쌓는 학습
수료증 2급/3급 (Certificate II & III)	- 보통 6개월 ~ 1년 과정 -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교과 과정 학습
수료증4급 (Certificate IV)	- 보통 1년 - 학생들의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학습 능력 요구 - 업무의 평가 및 분석능력, 지도력 포함
준학사(Diploma)	- 보통 1년 ~ 2년 과정 - 업무에 대한 경영 능력과 판단 능력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습득 목적 - 한국의 2년제 전문 대학 학위에 준함
고급 준학사 (Advanced Diploma)	- 보통 2년 ~ 2년 6개월 - 전문인 단계로써 자기 개발, 기본 원리 원칙을 토대로 한 이해력과 응용력, 고도의 기술과 기획에 중점 - 준학사 학위보다 한 단계 상급과정

아야 할 문제이지만, 좋은 제도는 배워야 하고, 좋은 교육 제도 아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기회일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여 시행오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재호주한인잡지 기획취재팀, "Ausrtalian Education System", Australian Korean Magazine, Dec, No.1, pp.8-18,2006.
- [2] IDP 호주교육, <http://www.idped.com>.
- [3] 김이연, "호주의 평생교육", 박문사, 2005.

저자소개

정 학 기 (Hak Kee Jung)



1983.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BS)
1985.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MS)
1990.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Ph.D)
1995. 일본 오사카대학 객원연구원

2004. 호주 그리피스대학 객원연구원
2006.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편집이사
2007.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상임이사
※관심분야: 반도체소자설계 및 시뮬레이션,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